전북 양성평등 모어 영화제 성료

지역사회 양성평등 가치 · 문화 확산 위해 진행… 7편 장 · 단편 영화 상영

제2회 전북 양성평등 영화제인 '모두가 어우러지는 모어(MORE)영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8일 전북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모어(MORE)영화제는 여성정책연구소 산하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가 주관해 지역사회에 양성평등의 가치와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모어(MORE)영화제는 '생애구술사, 공감, 청년, 연결, 기후위기' 등 여성과 가족의 일상과 밀접한 지역 이슈를 중심으로 총 7편의 장·단편 영화를 상영했다.

15일 개막작으로는 생애구술사를 주제로 하는 〈양림동 소녀〉가 상영됐으며, 상영 후에는 감독 초청 GV(관객과의 대화)와의 스페셜 토크가 진행됐다. 이어 16일에는 공존과 변화의 메시지를 담은 폐막작 〈아이슬란드가 멈추던 날〉을 상영, 지역 활동가들과 양성평등한 지역 문화를 함께 모색하는 '기획토크'로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제2회 전북 양성평등 영화제인 '모두가 어우러지는 모어(MORE)영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기후위기 섹션에서는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영화 〈모따이나이 키친〉이 상영된 후,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디스커버 토크가 이어졌다.

모어(MORE) 섹션에서는 두 편의 작품 〈쿠키 커피 도시락〉과 〈1종 보통〉이 상영됐다. 상영 후에는 '공감'이라는 주제로 관객과 함께하는 키워드 토크 시간이 마련, 각 영화가 다루고 있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 섹션으로 〈순자와 이슬이〉와 〈특별장학금〉이 상영,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청년들이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서로의 꿈과 경험을 나누는 가운데 지역사회 내에서의 청년들의 역할과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전정희 원장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줘 '모두가 어우러지는 모어(MORE) 영화제'가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양성평등 문화가 도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제4회 고창 신재효문학상 당선작 선정

이수정 작가 '고인, 돌' … 상금 5000만원 수여

고창군은 '제4회 고창 신재효문학상' 당선작이 이수정 작가(사진)의 '고인, 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단(김양호·김홍정·박영진·손홍규·정지아)은 국내 최고의 문인들로 꾸려졌으며, 수상작의 상금은 5000만원이다.

당선작으로 뽑힌 '고인, 돌'은 주인공과 어머니가 고창으로 떠나는 여정을 통해 가족의 의미과 가족을 지탱하는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내용이다. 우리 시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이수정 작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미국으로 이민간 후, 2022년 '타이거마스크'로 재외동포문학상 대상, 2024년에는 작품 '코타기나발투의 봄'으로 영남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올해 4회를 맞은 고창 신재효문학상은 고창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소재로 하는 문화콘텐츠 제작 기반을 위해 21년도에 처음 시작됐으며, 당선작은 내년 2월중 출판사 다산북스를 통해 출간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을 배경으로 하여 고향의 의미, 가족의 의미를 그린 이번 당선작을 통해 전 세계에 고창을 알리는 문화관광자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 성평등 문화예술 아카이빙展

12월 1일까지 문화예술계 성평등 향해 걸어온 발자취 · 변화 과정 담아

전북 문화예술계의 성평등을 위한 5년 간의 여정을 담은 '2024 전북 성평등 문화예술 아카이빙展: 수선'이 11월 19일부터 12월 1일까지 하얀양옥집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2018년 미투 운동을 계기로 출범한 '전북 성평등 문화예술 네트워크'의 활동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기록, 성평등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향한 다짐을 담았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이번 전시 주제 '수선'은 찢어지고 훼손된 옷을 바늘과 다림질로 복원하는 과정에 빗대어,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실현 과정을 표현했다.

전시는 △터짐, △고침, △다림, △되살림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통해 전북 문화예술계가 성평등을 향해 걸어온 발자취와 변화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터짐'에서는 미투 운동을 통해 예술계에서 감춰져 있던 목소리들이 드러난 순간을, '고침'에서는 드러난 문제들을 치유하고 개혁하기 위한 성평등 네트워크의 노력과 활동을 조명한다. '다림'에서는 불평등을 바로잡고 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려는 성평등 네트워크의 비평 활동을, '되살림'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평등 생태계를 꿈꾸며 미래를 향한 다짐을 표현한다.

한편 개막식은 19일 오후 3시 하얀양옥집에서 열린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박물관,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 체험 부스 운영

전북대학교박물관(관장 엄혁용)이 배리어프리 영화(장벽 없는 가치봄 영화) 상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을 초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19~20일 이틀간 박물관 강당에서 영화 상영과 함께 박물관 앞 잔디밭에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먼저, 배리어프리 영화는 화면 해설과 한글자막을 통해 눈으로 듣고 귀로 볼 수 있는 영화로, 시·청각장애인은 물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다. 19일에는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을, 20일은 이종필 감독의 '탈주'가 각각 오후 2시 박물관 강당에서 상영된다.

이와 함께 박물관 야외 잔디밭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애 인식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느루걸음, 다울공작, 사이영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참여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자 키링 만들기, 촉각을 활용한 모루인형 만들기, 환경 보호를 위한 병뚜껑 그립톡&키링 만들기, 수어 관련 거울버튼 만들기 등이 준비됐다. 모든 체험은 재료 소진 시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엄혁용 박물관장은 "배리어프리 영화를 통해 관람의 장벽을 허물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상생하는 거점대학박물관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예술문화연구소-중국 평정산대 음악학원, 학술교류 협정 체결

전북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소장 이미배)는 18일 중국 평정산대학교 음악학원(원장 정지규)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한국음악과 중국음악, 문화예술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개최와 연구조사, 학술 정보 및 자료 제공, 학술 연구 인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순창군,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등재 앞두고 기원제 개최

천년 전통의 장류 고장 순창군이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의미 있는 기원제를 개최했다.

지난 16일, 순창 발효테마파크에서 열린 기원제는 전통 장류 문화의 세계화를 기원하는 행사로, 같은 날 열린 떡볶이 페스타와 어우러져 다채로운 축제로 꾸며졌다.

이번 행사는 전통 장류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이 주관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부스를 통해 장 담그기 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방문객들은 이번 장 담그기 체험을 통하여 전통 발효문화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MZ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겨냥한 유네스코 기원 행사와 순창 떡볶이 개발 대회, 떡볶이 대첩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었다.

순창군의 장류문화 보존 노력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순창군은 전통장의 역사 연구와 제조법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도시민 장독대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통 장류문화 계승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권고' 판정을 받아 세계화를 앞두고 있다.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 2일부터 7일까지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리는 제19차 무형유산 보호 정부간 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